

아르헨티나, 메르코수르(Mercosur)와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

Oscar Oszlak Principal Researcher
CEDES (Center for State and Society Studies)

■ 주요 내용

-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경제주체인 메르코수르(Mercosur)와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은 대조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해옴.
- 2015년 말, 메르코수르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정권 교체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라틴 아메리카에는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향이 돋보임.
-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통합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국내·외의 여러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.



1 이슈 현황

☒ 메르코수르(Mercosur)와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의 서로 다른 외교 노선과 경제 현황

- 멕시코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로 구성된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, PA)은 2012년 창설 이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.
 - 라틴 아메리카 내 태평양동맹이 GDP는 연평균 4.6%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.
 -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41%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, 세계 강국들과 무역 협정을 끌어냄.
 - 이 국가들은 개방주의를 추구하는 친(親)시장경제 성향의 국가로,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해온 메르코수르(Mercosur) 국가와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음.

그림 1.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대통령



자료 : 태평양동맹 공식 홈페이지(Pacific Alliance - Alianza del Pacífico)

- 메르코수르(Mercosur) 조약은 1991년,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하였으며,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후발주자로 참여함.
 - 태평양동맹 소속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편, 메르코수르 국가는 태평양동맹 국가에 다소 못 미치는 4.3%의 성장률을 기록함.

- 개방주의 노선을 통해 동맹국 내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 온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달리,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통합은 정체된 상황임.
- 메르코수르의 성장세 둔화는 보호무역주의의 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.

그림 2. 메르코수르 회원국 현황



자료 : WIKIMEDIA

-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(EU) 협정 체결도 지지부진한 상태임.
 - 브렉시트(Brexit)로 인한 유럽의 위기 가운데,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시아-태평양 국가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선전하고 있음.
 - 반면 태평양동맹은 창설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,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회원국 사이에서 교역하는 상품 92%의 관세를 철폐함.

☞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은 각각의 수출을 구성하는데 있어 상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음.

- 이 두 동맹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차지하는 수출은 전체 수출의 최소 3분의 2를 차지함.
 - 이는 경제 통합만으로는 산업의 전망이 낙관적일 수 없음을 의미함.
- 더불어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의 교역량을 비교했을 때 태평양동맹이 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.

- 그러나 태평양동맹 지역 내 무역 규모와 시장의 크기가 메르코수르보다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,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함.

▣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 간 통합을 추구하고자 함.

- 현재 아르헨티나의 공식 외교정책은 중남미 지역 두 국가동맹의 통합임.
 - 그동안 메르코수르는 두 개의 최대 파트너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상호 협정에 치중되어 있었음.
 - 메르코수르의 새로운 원동력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를 버리고 관세장벽을 함께 낮추어가는 일임.

2 원인과 분석

▣ 메르코수르의 핵심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, 정권 교체로 외교 노선에 변화

-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메르코수르는 PA와 같이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음.
 -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(Cristina Kirchner)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(Dilma Rousseff) 전 브라질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적대적인 견해를 밝힘.
- 그러나 2015년 12월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끄리(Mauricio Macri) 대통령이 당선되고, 지난 9월에는 미셰우 테메르(Michel Temer)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교 노선에 변화가 생김.
 - 마끄리 대통령은 “메르코수르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었으며, 새로운 원동력을 얻어 태평양동맹(PA)의 방향으로 수렴해야 한다.”고 언급함.
- 메르코수르보다 더욱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태평양동맹 회원국이 메르코수르 국가에 시사하는 점도 있음.
 - 아르헨티나와 브라질, 베네수엘라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10년 이상 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노동조합이 강하고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형성함.
 - 그러나 이와 달리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칠레와 콜롬비아의 사례와 같이 임금 수준이 낮고 소득 불균형이 높은 편임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메르코수르 회원국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시장의 물품을 수입함.

3 전망과 시사점

▶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내 우파 정권이 들어선 후, 정부의 기존인 '자유무역주의 추구'에 맞추어 지역경제통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.

-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새로 취임한 지도자들 모두 친(親)시장주의를 추구하며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음.
- 따라서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의 통합 추진이 긍정적으로 전망됨.
 - 두 달 전, 아르헨티나는 태평양동맹에 참관국 자격을 요청하여 이미 태평양동맹 참관국 지위를 획득하였음.
 - 브라질의 테메르 정부 역시 시장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, 만일 브라질이 태평양동맹 가입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두 동맹 간 통합은 쉬워질 전망이다.

▶ 그러나 여전히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의 통합을 저해하는 대내외적 장애 요인이 존재함.

- 10년 이상 좌파 정부가 유지해온 보호무역주의로 현재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반발이 심함.
 - 새 정부의 취임 기간 동안 실업률이 증가했는데, 이 같은 추세라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.
-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가운데,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음.
 - 베네수엘라는 역대 최고의 경제위기로 협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,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두 동맹 간 최종 협약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입장임.
-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무역주의 물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.
 -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우파 정권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(親)시장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, 최근 오바마(Obama)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이 경쟁을 심화하고 고용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.
 - 또한, 도널드 트럼프(Donald Trump) 미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이번 미국 대선의 화두가 되었음.

- 2016년 7월에 새롭게 취임한 페드로 쿠친스키(Pedro Kuczynski) 페루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 통합에 대해 '지역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, 국가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천천히 진행될 것'이라며 조심스럽게 예측함. **EMERiCs**

출처

Pacific Alliance - Alianza del Pacífico 및 보도자료